

조총장 한의대 유급책임 사퇴

사퇴재고 요청과 신입총장 선출문제 대두

본교 조영식총장은 지난 8월 27일 총장직을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조영식총장은 일간지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 한의대생들의 수업평가 이후 본인을 포함한 모두가 우려해 왔던 집단유급이 현실화됐으며 이 문제가 본교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유급을 불러온 것에 대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끼며 사퇴한다"고 말하고 "한의대생들은 속히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정부당국도 법률적인 방법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영식총장의 사퇴사투리는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총장의 직무는 궁영일 서울캠퍼스 부총장이 대행하고 있으며 수원의 경우 지난 8월 31일 전권퇴직한 테리영 부총장이 명예교수로 2학기 동안 부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영식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관련해 교수협의회는 이윤남 비상총회를 갖고 ▲총장은 사퇴를 재고할 것 ▲한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할 것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하였다.

수원캠퍼스 교직원 일동과 재경회 교수·직원 일동, 세무부, 감독·코지 일동도 30일과 31일 양일간 각각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한의대학회도 "총장의 사퇴요명은 교육자의 절단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고 밝히었으나 집단 유급문제는 대학차원에서 아닌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총장의 사퇴발표가 한의대의 유급유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영식총장의 이번 사퇴발표는 한의과대학이 있는 사립대학 최초로 대외적으로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번 총장의 사퇴에 따라 신입총장선출에 관한 논의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11월 제9대 총장선출과 관련해 양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장, 대학노조, 의료원노조와 총민주동맹까지 지난 6월 3일 '93 민주총장선출을 위한 결의 제 민주총체대의원회(민주총)'를 결성하고 5

차의 회의를 거치는 상황에서 조총장의 퇴임을 맞았다. 민중의 본지는 "경희발전의 대안으로서 총장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총장의 사퇴는 총장의 퇴임은 논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총학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윤종관(문리대·사학) 군도 조영식총장의 정예퇴직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발전의 위대한 대학원회를 중심으로 총학적인 학교발전의 방향을 세울 것이다. 총장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총장의 퇴임은 논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임총장선출에 대한 경외구성원들의 의견은 지금의 사발적이고 제재되지 못한 슬픔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공식입장이 발표될 즈음

다양한 의견들은 조율을 거쳐 표출될 것 같다. 조총장의 사퇴가 우리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선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때보다도 정치발전의 위대한 학내노력은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사죄위 열변 재발령

'92후기학위 수여식 거행

박사60, 석사 2백61명 배출

'9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30일 11시부터 크라운관에서 있었다.

모두 575명이 학위를 받은 이번 졸업식은 신영환(문리대·사학)과 교수·서울캠퍼스 교수처장의 사회로 개식선언, 국민에게, 학위수여, 총장축사, 고가제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영식총장은 축사에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사람으로 모교를 빛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식총장은 이날 축사를 감축시킨 사회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학사 119명(서울 61명, 수원 58명) ▲일반대학원 박사 60명 ▲일반대학원 석사 60명

▲경영 대학원 석사 39명 ▲교육대학원 석사 55명 ▲행정 대학원 석사 32명 ▲신문화대학원 석사 8명 ▲평화복지대학원 석사 4명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18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4명 ▲행정관리자과정 수료 27명 ▲연료연구자과정 수료 7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34명

서울 V.O.U.수습국원 모집

서울캠퍼스 V.O.U.는 93학년도에 대상으로 제41기 수습방송요원을 모집한다. 이번 수습방송요원 선발은 2학기부터 본격적인 TV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예선이나, 프로

수원 캠퍼스 사회진출준비위원회 산하 엠비엔에서 있는 졸업생발령비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1기를 실시하고 부장 사복장장이면 된다. 한편 1학기를 졸업준비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늘 6월부부터 17일까지 학생회관 대회의실에서 납부해야 한다.

유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관련기사 10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청회를 주하면서 지난 3월 23일부터 수업을 거부해온 한의대생 6백50여명이 유급시한이 지나도록 학사입장에 복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급이 예상되는 학생은 한의학과 제41기 6백50명중 수업에 참가한 39명을 제외한 6

한의대생 6백50명 유급시한 경과

제적위험 커질때는 집단휴학 결의

본교 한의과 학생들이 지난 유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관련기사 10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청회를 주하면서 지난 3월 23일부터 수업을 거부해온 한의대생 6백50여명이 유급시한이 지나도록 학사입장에 복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급이 예상되는 학생은 한의학과 제41기 6백50명중 수업에 참가한 39명을 제외한 6

백50명이다. 현재 생명대학 우석대를 제외하고 병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우리학교를 비롯하여 경산대, 동국대, 대전대이고 지금은 최단한 유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한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당부했다. 한편 한의과대 56명은 지난 7월 전권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9월1일 만료했다.

태 집단휴학을 하기로 했다"고 앞으로의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유급생 학생들은 "유급은 원칙적으로 학년말 학교가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최단한 유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한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당부했다. 한편 한의과대 56명은 지난 7월 전권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9월1일 만료했다.

수원 수강신청 정정기간 설정
오늘부터 3일간, 재학생 수강신청은 불가

수원캠퍼스 교무과는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설정·발표하였다.

교무과는 1학기말 on-Line 전산망을 통한 수강신청 및 정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정정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수강신청방법이 2학기부터 변경됨에 따라 개강후 이에대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인해 수강신청업무담당 부서인 교무과의 행정업무가 마비됨에 따라 정정기간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수강신청정정은 1)수강과목 중 폐강된 과목에 대해 정정하지 않은 학생 2)요일시간대에 본인실수로 2과목이상 수강신청한 학생 3)4학년학생으로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학생 4)정규사원, 인턴사원등으로 채용되어 취업중인 학생 5)그외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서면 가승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취업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수원도서관 전산화용 컴퓨터 도입

내년 하반기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2일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도서관은 도입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학기부터 수원캠퍼스 보유도서 20만권의 자료를 입력하고, 단계적인 도서관 완전전산화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 2학기 개강까지 전산화

장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교무과에서 전산자료와 대조·정정하고 해당과목을 ▲발기예정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또한 수강신청후에는 수강신청 확인증을 작성하여 해당과목 출신부에 본인명단을 기재·삭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정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이고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무과에서 실시하게 된다.

서울 총장직속 '취업정보실' 신설

능동적인 취업관련 업무 기대

본교 학생생활연구소와 학생취업지원센터가 통합, 개편된 '취업정보실'이 지난 1일 신설되었다.

취업정보실의 신설에 따라 학생취업지원센터는 장학복지과로 개편되어 장학과 복지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며, 현재의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직취업정보실 실장을 겸직하게 된다.

또한 '취업정보실' 사무실은 현재 학생생활연구소의 공간을 연구소로 재편성하여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에따라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올 겨울방학중에는 장서대출업무 중단하게 된다.

한편 이에따라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올 겨울방학중에는 장서대출업무 중단하게 된다.

"모든 바람은 대학주보로부터"

대학주보 42기 수습기자 모집

오는 15일 원서접수 마감

건설에 대해 순수한 열정으로 대학문화와 선도해가는 대학주보가 학생과 학사를 가르며 날카로운 필통을 드는 일 대학의 지성을 찾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미래를 기록하고자 하는 지성은 지금 곧 대학주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인원: 서울·수원캠퍼스 〇〇명
- ▲모집부문: 일반기자·특(민화)기자·사건기자
- ▲선발방법: 1.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9월1일부터 15일까지 2. 전형일자: 9월 15일 오후 5시 양캠퍼스 편집실 다. 전형방법: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사 편집실
- ▲제출서류: 응시원서지(당사 소정의 양식)
- ※작성한 내용은 본사원집필을 의뢰드립니다.

서울 구내 0055, 수원 구내 2055

대 학 주 보 사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가고싶은 길은 가야한다



길없는 길에서 방향하는 70년대
가야한 길로 밀려가는 80년대
가고싶은 길에 서있는 90년대

70년대의 막걸리와 통기타
80년대의 화염병과 차가운 소주
90년대의 랩송과 컴퓨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기록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곳은
대학주보입니다

아침이슬에 뜬적시며
함께 걸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 학 주 보 사